|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| http://www.mke.go.kr |
|---|---|
| **2012년 1월 13일(금) 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자료문의 : 유법민 투자유치과장(02-2110-5361), 박성우 사무관(5365), 김시덕 주무관(5362) | |

# '11년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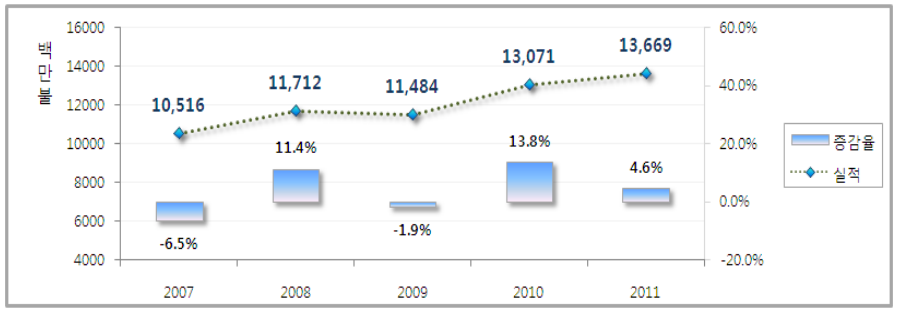
◇ 전년대비 4.6% 증가한 136.7억불 FDI 신고
◇ 그린필드형 투자(5.8%↑) 및 선진국 투자(33.6%↑) 증가
◇ 유럽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EU의 對韓 투자 증가(57.4%↑)

## 1. 전반적인 동향 및 평가

□ **(동향)** '11년 외국인직접투자액(신고기준)은 '10년 130.7억불 대비 **4.6% 증가**한 **136.7억불 기록**

○ 도착금액(잠정)은 전년(54.1억불) 대비 **18.3% 증가**한 **64억불**

< 연도별 FDI신고액 추이 >




□ **(평가)** 2000년대 들어 **110억불 ~ 120억불대 수준**에 머물러 있었으나, '10년도에 이어 '11년에도 130억불 이상이 투자 신고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**對韓 투자확대가 본격화**된 것으로 평가

○ 이는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**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**한 것으로 판단

* '11.11월,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(안정적 → 긍정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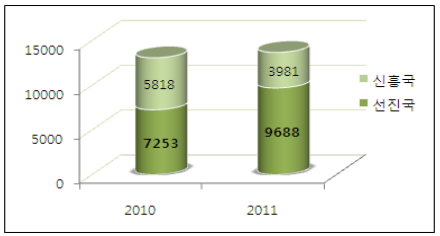


○ 美·日 신용등급하락, 유럽재정위기 지속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**미국·일본·EU의 對韓 투자 확대가 외국인 투자실적 개선에 기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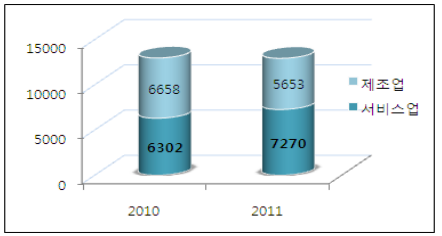
* 주요 국가 전년대비 증가율 : EU 57.4%↑, 미국 20.2%↑, 일본 9.6%↑

□ **(특징)** **①EU·美·日 등 선진국 ②그린필드형 ③서비스업 ④신규 투자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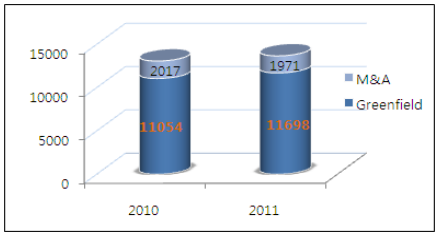
< 국가별 투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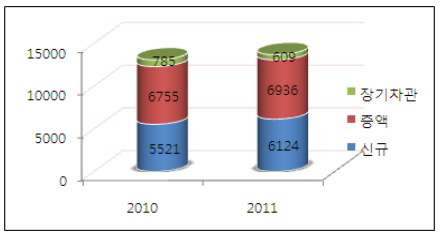

< 업종별 투자 >




< 유형별 투자 >




< 형태별 투자 >




○ **(국가별) 선진국 증가**(33.6%↑), 신흥국 감소(31.6%↓)

-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EU·美·日 등 **선진국 투자 증가**

○ **(업종별) 서비스업 증가(15.4%↑)**, 제조업 감소(15.1%↓)

- **유통·물류, 금융·보험,**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투자 증가

○ **(유형별) 그린필드형 투자 증가(5.8%↑)**, M&A 정체(2.3%↓)

- 신규 공장, 사업장 설립 등 **고용창출**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소폭 증가

○ **(형태별) 신규**(10.9%↑)·증액(2.7%↑) **투자 증가,** 장기차관(22.4%↓)은 감소

## 2. 분야별 세부 내용

1 **(국가별)** 對韓 투자규모가 큰 **EU·미국·일본 등 선진국 중심**으로 **증가**, 중동 등 신흥국은 감소. 다만, **도착금액은 신흥국 증가**(전년比 125.3%↑)

○ **(선진국) 미국·일본의 신용등급하락, 유럽재정위기 지속**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**對韓 투자 증가**

- **EU**(5,032백만불, 57.4%↑)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**독일***(449%↑), 영국(41.5%↑), 프랑스(47.5%↑)를 중심으로 투자 증가

  * A사(353백만불, 전기장비), H사(199백만불, 접착제), S사(208백만불, 석유정제품), O사(164백만불, 비즈니스서비스) 등

- **미국**(2,372백만불, 20.2%↑)은 **전기전자**(235%↑) 등 **제조업***분야가 **크게 증가**(174%↑)하고, 금융·보험(54%↓) 등 서비스업은 감소(19%↓)

  * K사(80백만불, 태양광모듈), R사(75백만불, 솔라패널), Y사(150백만불, 무선항행 및 측량기구) 등

- **일본**(2,284백만불, 9.6%↑)은 **화공**(73%↑)·운송용기계(717%↑) 등 부품소재 중심으로 제조업* 소폭 증가(2.8%↑), **금융보험** (43%↑)·유통(43%↑) 비즈니스서비스 등 **서비스업** 분야 증가**(16.4%↑)**

  * D사(173백만불, 화학섬유원료), H사(51백만불, 반도체용 고순도약품), T사(45백만불, 축전지), T사(52백만불, 합성섬유), P사(46백만불, 자동차용 공기조화장치) 등

  ** D사(63백만불, 금융), T사(79백만불, 금융), N사(131백만불, 게임SW 개발), D사(54백만불, 비즈니스서비스) 등

○ **(신흥국) 중화권 중심**으로 **투자가 증가**(1,939백만불, 21.6%↑)하였으며, 중동 등 기타 지역의 투자는 감소

- **중국**은 지역개발* 등 **서비스업**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(651백만불, 57.2%↑), 싱가폴, 말레이시아, 홍콩 등 기타 중화권은 **비즈니스 서비스**, 지역개발 등 서비스업** 중심으로 증가(1,288백만불, 10%↑)

  * H사(90백만불, 관광숙박시설), B사(70백만불, 지역개발), C사(32백만불, 비주거용 건물임대업) 등



  * C사(92백만불, 싱가폴, 비즈니스서비스), R사(200백만불, 홍콩, 지역개발), S사(100백만불, 싱가폴, 마니라개발) 등

- **중동**은 해외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투자 감소(92백만불, 46.2%↓), 금융·보험 분야 중심으로 투자 유입

**<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>**

(단위: 백만불)

| 연도 | | '09년 | '10년 | '11년 | 증감율(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기준 | 선진국 | 8,717 | 7,253 | 9,688 | 33.6 % |
| | EU | 5,297 | 3,196 | 5,032 | 57.4 % |
| | 미국 | 1,486 | 1,974 | 2,372 | 20.2 % |
| | 일본 | 1,934 | 2,083 | 2,284 | 9.6 % |
| | 신흥국 | 2,767 | 5,818 | 3,981 | -42.3 % |
| | 중화(중국) | 1,462(160) | 1,594(414) | 1,939(651) | 21.6%(57.2%) |
| | 중동 | 238 | 171 | 92 | -46.2 % |
| | 기타 | 1,067 | 4,053 | 1,950 | -51.9 % |
| 도착기준(잠정) | 선진국 | 5,785 | 4,532 | 4,427 | -2.3 % |
| | 신흥국 | 961 | 874 | 1,969 | 125.3 % |

2 **(업종별) 서비스업은 증가, 제조업**은 대규모 투자건이 적어 감소. 다만, **도착금액은 제조업**(전년比 25%↑) **및 서비스업 모두 증가**

○ **제조업(6,657백만불, 15.1%↓)**은 화공(97.6%↑), 기계장비, 전기전자 부문이 증가한 반면, 운송용 기계(87.2%↓), 의약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

  * H사(199백만불, 獨, 접착제), S사(208백만불, 獨, 석유화학물질), D사(77백만불, 네덜란드, 금속절삭가공기계), D사(173백만불, 日, 화학섬유원료), H사(51백만불, 日, 반도체용 고순도약품) 등

○ **서비스업(7,270백만불, 15.4%↑)**은 금융·보험*(81.5%↑), 유통, 비즈니스 서비스** 등에 대한 투자 증가

  * S사(91백만불, 英, 금융), K사(52백만불, 佛, 보험), D사(63백만불, 日, 금융) 등

  ** O사(164백만불, 獨, 비즈니스서비스), S사(50백만불, 스위스, 연구개발), L사(50백만불, 싱가폴, SW개발 및 공급) 등

<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 : 백만불)

| 업 종 | | '09년 | '10년 | '11년 | 증감율(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기준 | 제조업 | 3,725 | 6,658 | 5,653 | -15.1 % |
| | - 전기전자 | 1,798 | 1,561 | 1,746 | 11.8 % |
| | - 기계장비 | 178 | 407 | 503 | 23.4 % |
| | - 화공 | 204 | 927 | 1,831 | 97.6 % |
| | 서비스업 | 7,594 | 6,302 | 7,270 | 15.4 % |
| | - 금융·보험 | 1,252 | 960 | 1,742 | 81.5 % |
| | - 도·소매(유통) | 2,204 | 965 | 1,743 | 55.1 % |
| | - 비스니스서비스 | 1,947 | 952 | 1,291 | 35.6 % |
| 도착기준 (잠정) | 제조업 | 2,409 | 2,360 | 2,949 | 25 % |
| | 서비스업 | 4,289 | 2,971 | 3,408 | 14.7 % |

3 **(유형별) 그린필드형 투자**(11,698백만불, **5.8%↑**)**가 증가**하고, **M&A형 투자는 소폭 감소**(1,971백만불, **2.3%↓**)

○ 한-EU FTA 발효 등 한국의 우호적인 투자환경 및 신규 투자가 발굴 노력 등을 통해 **그린필드형 투자 증가세 지속**

○ M&A형 투자는 **지난해 추세가 지속**되어 감소, 다만, 지난해 급감(40.2%↓)한 것에 비해 **감소폭은 둔화**

4 **(형태별) 신규**(6,125백만불, 10.9%↑)·증액(6,936백만불, 2.5%↑) 투자는 **증가**, 장기차관(609백만불, 22.4%↓)은 감소

○ 도착기준(잠정)으로도 신규(1,572백만불, 21.3%↑)·증액(4,296백만불, 30.6%↑) 투자는 증가, 장기차관(512백만불, 29%↓)은 감소

5 **(지역별)** 금융, 유통 등 서비스업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수도권 투자비중 증가 추세('10년 37.1% → '11년 43.1%)

○ 지역별 **투자규모**(신고기준)로는 **서울(3,911백만불)**, 경기(1,347백만불), 경북(835백만불), 전남(667백만불) 순

○ 도착기준(잠정)으로는 **서울(2,456백만불)**, 경기(1,108백만불), 경북(555백만불), 충남(441백만불) 순



## 3. '12년도 FDI 여건 및 전망

□ **(FDI 여건)** 미·EU와의 **FTA 발효***, **엔고**로 인한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 증가 등 **기회요인**이 있으나,

* 한-미 FTA : 향후 10년간 연평균 23~32억 달러의 추가유입 전망(KDI 등)

○ **유럽 재정위기 심화**, 글로벌 경기침체 및 더블딥 우려 등 **위협요인**도 병존

□ **(FDI 전망) '12년도 국내 FDI**는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**130억불**(신고기준) **내외**가 될 것으로 전망

* 최근 5년간('07~'11) 평균 국내 FDI(신고기준)는 120.9억불 수준

○ **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**(Inward FDI)는 금융위기 이후 '10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, **'11년도 하반기 들어 둔화**(UNCTAD, '11.10월)

□ 유럽재정위기, 중동위기(이란 등)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, **FDI실적 제고**를 위해 **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**

## 4. '12년도 활동계획

□ **FTA 등 우호적 투자환경**을 적극 활용하여 **세계경제 불안**에 대비한 **선제적 투자유치 활동** 강화

○ **글로벌 재정위기** 등에 따른 **투자심리 위축 방지**를 위해 주요 對韓투자국(美·日·EU 등) 대상으로 **상반기 IR 집중** 개최

| 시기 | 국가 | 활동내용 및 유치대상 |
|---|---|---|
| 2월 | 사우디, 카타르 | 지역개발, SOC 등 |
| 3월 | 미국 | 금융, IT융합 등 |
| 4월 | 일본 | 반도체 등 부품소재 |
| 5월 | 중국 | 지역개발, 신재생에너지 등 |
| 6월 | 브라질 | 관광·레저, 국내기업 진출 등 |
| | EU (독일, 네덜란드) | 부품소재, 신재생에너지, 한류컨텐츠 등 |

○ **한-美, 한-EU FTA 등**의 투자유치 기회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**일본** 등의 미·EU 등 **선진시장 진출수요**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

＊ 관세인하 효과가 큰 **자동차**, **전기전자**, **무선통신기기** 분야 유망 타겟기업 발굴

○ 세계경제 및 해외투자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**BRICs, 말레이시아** 등 **對 신흥자본국***으로 **유치활동 다변화**

＊ **브라질**, 말레이시아 등 국가를 대상으로 **최초의 국가 IR** 추진

□ **핵심분야 타겟팅** 및 **글로벌 투자협력 활성화** 등을 통한 **투자유치 촉진기반 마련**

○ **미래 성장잠재력 확충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부품소재산업 강화** 등 경제적 기여도 큰 분야에 대한 **투자유치 로드맵 수립**

＊ 녹색기술·첨단융합 등 **분야별 가치사슬 분석**을 통해 **핵심 품목/기업 타겟팅**

○ **글로벌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투자(GAPS), 외국기업과 국내자본의 공동투자** 확대 등을 통한 **글로벌 투자협력 활성화**

□ 미래 성장동력 확충,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**質 좋은 투자유치 기반을 확립**하기 위해 **외국인투자촉진법령 전면 개정 추진**

○ 조세감면, 입지제공 등 **인센티브 지원대상**을 **고용창출·고도기술 이전** 등 **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**중심으로 개편

○ **외국인직접투자 실적 관리**를 **도착기준 중심**으로 하고 **신고기준은 병행 관리하는 방식**으로 전환

※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('12년중)하여 외국인투자(FDI) 통계를 도착금액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

붙임 :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동향